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학과 | | 이름 | 서_은 |
| 파견국가 | 영국 | 파견도시 | Colchester |
| 파견대학 | University of Essex | 파견기간 | 2016.10-2017.7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에식스 대학교는 영국 Essex county 콜체스터(Colchester)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콜체스터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이며 런던에서 기차로 40분 거리에 있어 런던과의 근접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버스로 50분 거리에 바다가 있어 주말에 가기 좋습니다. 학교 캠퍼스는 순천향대랑 비슷하고 중심 타운도 학교에서 멀지 않습니다. 기숙사에서 캠퍼스까지 멀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p> <p>학교 내에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있고 도서관에서는 창문으로 보이는 멋진 뷰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에서는 특정한 요일에 학생들에게 스쿼시 등 무료 강습을 해주고 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려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 학교 내에 장이 열려 야채와 빵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p> <p>학교에 다양한 기숙사가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에 준하는 기숙사에 머물 수 있고 주방이 있어 음식을 해먹거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학교 근처에 큰 마트가 있고 아시안 마트도 있어서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p> |
| 2016-2학기 수업 |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p> <p><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LA410-4-FY Initial Spanish - 스페인어 기초를 다지는 수업으로서 문법부터 회화까지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입니다. 수업은 기본 교재와 교수님이 부가적으로 나눠주시는</p> |

프린트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매 수업시간마다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수업을 가기 전에 복습을 꼼꼼히 하고 가는 것이 수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 기초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어야 수업을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LG212-5-AU Analysing the structure of English - 영어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문법을 어느 정도 알면 어렵지 않은 수업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우는 방식과는 다르게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고 Final test 없이 에세이로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수업 내용을 class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중간중간에 퀴즈가 몇 번 있는데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시험도 수업을 잘 듣고 공부도 꼼꼼히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Class에서 배운 것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Class 수업을 열심히 참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G113-4-AU Skills For Linguists – 언어에 관련된 스킬을 중점으로 하는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향후 연구에 참여할 때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소프트웨어, 도서관, 논문 자료를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 어떻게 학술 자료를 요약하고, 연구 논문, 시각 자료 등을 작성하는지 주로 수업에서 다룹니다. 수업을 통해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이었지만 다른 수업에 비해 Class 수업이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니다. 총 2번의 에세이가 있는데 이 에세이 과제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매주 Moodle에 올라오는 퀴즈를 기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이 퀴즈도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풀어야 합니다.

BE511-5-AU Marketing Management – 마케팅 관련 수업입니다. 총 2번의 에세이가 있고 수업은 강의와 세미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때 마케팅 관리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톨과 개념 등을 공부합니다. 반면에 세미나 수업은 컨설팅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합한 자료를 조사하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개념들을 적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 | |
|----------------|---|
| | <p>수립해야 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은 그룹별로 준비를 하지만 평가는 학생 개인의 마케팅 계획을 제시하는 2개의 개별적인 에세이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첫 번째 에세이보다 두 번째 에세이가 중요하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에세이 작성 시에 참고 문헌을 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마케팅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수업 방식이었기 때문에 글로만 배울 때보다 마케팅이라는 과목을 이해하기 쉬었습니다.</p> |
| 2017-1학기 수업 |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BE431-5-SP Business Strategy – 경영학 관련 수업을 더 듣고 싶어서 선택한 과목이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 비즈니스 전략 수립의 개념과 도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고 기업이 어떻게 사업 환경을 이해하고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는지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한번의 강의 수업과 세미나 수업이 진행됩니다. 강의는 비즈니스 스쿨 큰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과 다같이 듣는 수업이고 세미나 수업은 각자 정해진 시간의 세미나 수업에서 소규모의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세미나 수업에서는 다른 비즈니스 수업과 비슷하게 사례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 제가 수강했던 다른 비즈니스 수업 세미나에 비해 수업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1번의 에세이와 1번의 시험으로 성적이 나오는데 시험이 그 중 7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p> <p>BE413-5-SP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 이 수업은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제적인 안목, 당면 과제, 국제적인 경제 환경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수업시간은 강의 식으로 진행이 되며 미리 올려준 수업자료를 공부하고 가면 수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주 세미나 수업시간 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여 토론을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때문에 글로만 배우는 것보다 유익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세미나 수업을 준비해 가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업 전에 자료를 꼭 읽어가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수업 후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거나 Office Hour에 찾아가 상담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LA410-4-FY Initial Spanish – 총 1년 과정의 수업으로 저번학기 수업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매 수업마다 과제가 있는 편이라 과제를 하는</p> |

| | |
|--------------------|--|
| | <p>것에 있어서 부담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추천하지 않는다. 과제뿐만 아니라 스피킹 시험,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부분이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교수님이 영어로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상담도 잘 해주셨습니다.</p> <p>BE411-5-SP Operation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 이 수업은 운영 관리 이론에 대한 수업입니다. 수업이 1교시에 하기 때문에 약간 힘들기는 했지만 수업 내용은 아는 내용도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었고 모르는 부분은 노트 필기를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는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수업도 흥미로운 사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시간마다 조별로 교수님께서 나눠 주시는 사례별 질문들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 영어로 발표해야 하는 부담감이 클 수 있지만 조원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도 Revision수업을 잘 들으면 공부하기 어렵지 않고 패스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p> |
| <p>프로그램 운영</p> |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첫째 주에 단과 대학마다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어 본인에게 맞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전반적인 학교 생활 정보와 수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준 책자에 날짜 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나와있고 필수와 선택인 프로그램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학생 본인의 판단 하에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됩니다. 또한 1-2주간 가능한 수업 내에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변경하거나 유지하면 됩니다. 파견대학에서 생활 중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해외 교환학생 부서(Essex Abroad)를 찾아가면 많은 도움을 준다. 외국인 학생이 영어로 인해 수업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이 4시 이후에 무료로 진행되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 개인이 고민이 있을 경우에 담당 대학 Tutor나 교수님께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일반적인 영국의 날씨와 다르게 콜체스터는 영국에서도 비가 가장 적게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영국 지역들 보다 비가 적게 오는 편이어서 맑고 화창한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고 해도 조금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소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쌀쌀한 편이기 때문에 짧고 얇은 옷 보다는 따뜻한 옷을 많이 입게 됩니다. 봄과 초여름에도 쌀쌀한 편이니 여름옷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기숙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추운 편이기 때문에 전기요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면 영국에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학생할인을 해주는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옷을 현지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p> |
| 안전 | <p><i>현지 안전 상황</i></p> <p>런던 같은 대도시와는 달리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입니다. 친구들과 다닐 때에는 위험하지 않은 편이지만 밤 늦게 혼자 다니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Quays 기숙사는 7시 이후에는 타운에서 기숙사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내려서 걸어야 하므로 늦은 시간 귀가 할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p> |
| 숙소 | <p><i>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University quays 중 Sainty quay라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총 8명의 학생이 한 Flat에서 생활하며 주방을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저는 이 기숙사 중에서도 가장 넓은 주방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와 냉동실이 넉넉하게 있고 cup board도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개인 화장실이 있어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생각보다 방이 작지 않았습니다. Flat 주방에서는 주로 기숙사 친구들과 식사를 함께하거나 친구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quays는 캠퍼스와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들에 비해서 조용한 편이고 주변에 도미노피자, Subway 등과 같은 음식점과 Tesco, Let's go market과 같이 대형 마켓과 아시안 음식을 살 수 있는 마켓이 있어 음식을 해먹거나 사먹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p> |

| | |
|----|---|
| | <p>또한 Reception과 Laundry room이 가까이 있어 택배를 찾고 빨래(빨래 카드는 리셉션에서 구매할 수 있고 세탁 룸에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를 하기도 편했습니다.</p> <p>하지만 늦은 시간에 시끄러울 경우 Security가 오는 경우가 많아 주방에서 파티를 할 경우에는 시끄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p> |
| 식사 |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0) 홈스테이 ()</i> <i>외부식당 (0) 직접 요리(0)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캠퍼스 내에 저렴한 식당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Happy days와 카페 만 이용하였고 그 외의 식당은 만족스럽지 않아 잘 가지 않았습니다. 밥은 주로 타운이나 기숙사 근처 식당에서 먹거나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도보로 10-15분 거리에 Tesco 라는 대형 마켓에서 주로 식재료들을 사서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또한 근처 아시안 마켓에서 한국 식재료를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해먹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공용 밥솥이나 토스터가 있었지만 없는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타운에 있는 Wilko라는 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p> |
| 교통 |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학교가 기숙사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로 걸어서 다녔습니다. 학기 초에 1년짜리 버스카드를 발급하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스카드를 종이카드가 아닌 핸드폰 앱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콜체스터는 런던이나 캠브리지 등과 멀지 않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버스로 갈 수 있는 근교 도시들도 있습니다. 기차를 자주 이용할 시에는 Railcard(£33)를 발급받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합니다. 콜체스터 내에서는 버스로 대부분의 곳을 다 갈 수 있지만 노선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주로 학교 캠퍼스에서 타운, 콜체스터 기차역으로 운행되는 62,61번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해외 여행을 다닐 시에는 공항으로 갈 때 주로 National Express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때 Coach card(£10)를 만들면 저렴한 가격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인천-런던 프랑크푸르트-인천 | 약 200만원 |
| Fees |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 |
| 보험료 |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 개인적으로 국내 해외 여행자 보험을 들었고 기본적으로 영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내는 보험료를 포함하여 약 37만원을 지불했습니다. |
| 숙소 | £4807 약 720만원 | University quays(9개월) |
| 식비 | 약 400만원 | 타운에서 외식하거나 집에서 주로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캠퍼스 내에 있는 식당은 10 파운드 이내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 교통비 | Coach card £10 Rail card £ 33 1 year bus card £160 (콜체스터) 약 30만원 | 가장 기본적인 교통비입니다. 버스카드는 1년동안 추가 요금과 횟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각자의 계획에 따라 교통비가 달라집니다. 런던으로 기차를 이용해서 갈 경우에는 미리 티켓을 예매하면 왕복 17파운드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책값 | £ 20 약 3만원 | 도서관에서 대부분 대여가 가능하고 이외에는 아마존에서 중고 책을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PPT로 진행이 되고 관련 수업 자료들을 교수님들께서 미리 올려주시기 |

| | | |
|-----|------------------------|--|
| | | 때문에 책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
| 기타1 | 첫날 공항 픽업 비 £120 약 18만원 | 영국에 처음 도착한 날 공항 버스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이용이 어려워 함께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친구와 픽업을 신청해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학교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경우 히드로 공항에서 에식스 대학교로 가는 버스는 일찍 운행을 종료하기 때문에 Colchester 정류장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캠퍼스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항 내에서 Coach card를 구입 후 티켓을 구입하면 6-7만원 이내로 공항에서 캠퍼스까지 갈 수 있습니다. |
| 기타2 | 여행비 | |
| 합계 | 약 1408만원 (여행비 제외)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영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촉박하게 신청하기 보다 미리미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국 비자를 받으려는 다수의 학생들이 8,9월에 몰리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결핵검사를 예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되는 결핵검사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로 빈 자리가 있는지 물어 본 후 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자가 거절되지 않도록 비자 접수에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결핵검사를 진행한 후에 온라인에서 비자신청과 HIS 보험을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한 후에 관련 자료를 출력하고 준비하여 비자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되는데 최소 2-3주에서 한달 정도 소요가 되고 빠른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7일 이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대학은 한달 정도의 방학이 학기 사이사이에 있어 학기 중에는 과제로 인해 여행을 하기가 어려운 편이고 간혹 방학기간에 과제를 제출하는 수업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영국 대학은 시험을 1년에 한번 보기 때문에 1년동안 배운 모든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에 몰아서 공부를 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틈틈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공부만 하는 것보다 학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영국 생활에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경우 한인택배 회사가 여러 개 있으므로 영국 택배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여 선택하면 되고 Three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유럽으로 여행갈 때만 top-up해서 사용하는 유심을 구입하면 됩니다. 런던은 늦게까지 하는 편이지만 콜체스터는 5시 30분 이전에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물건을 사려면 그 시간 이전에 타운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생필품은 우리나라 다이소와 비슷한 파운드 랜드와 Wilko에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며 여기에 없는 것들은 주로 아마존이나 Argos에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Tesco와 아시안 마트는 늦은 시간까지 하고 아시안 마켓에서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학생 할인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안 마트에는 웬만한 한국 음식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에 도착해서는 BRP카드를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수령 우체국을 타운에 있는 것이 아닌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우체국으로 하는 편합니다. 또한 캠퍼스 내에 있는 병원에서 GP를 등록하고 우편으로 NHS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1년 비자를 받은 학생의 경우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Student center에서 원하는 은행의 Bank Letter를 받아 은행과 인터뷰 날짜를 잡아 인터뷰 후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카드와 비밀번호가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개설부터 계좌 사용까지 대략 한 달이 걸립니다. 학과와 수업을 선택할 시에 본인의 학과와 진로를 잘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고 전공으로 인정된다고 무작정 듣기 보다는 수업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견대학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은 Class 수업에서 학생들, 교수님들과토론이나 발표를 종종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철저히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지내야 할지 걱정이 앞섰지만 먼저 다가와주고 도와주는 친절한 친구들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수업방식에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다고 느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는 수업 일정이 여유로운 편이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어 제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었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거나 걱정이 많을 때에는 파견 전에 가졌던 마음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잡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셔서 의미 있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향후 목표와 계획에 많은 도움을 준 1년 동안의 교환학생 기간이 앞으로 파견 나갈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 | |
|---|--|
|  |  |
| <p>콜체스터 타운</p> | <p>도서관 앞 스퀘어</p> |



기숙사 공동 주방



친구들과 런던 놀이동산



Korean Society 우리 결혼했어요



캠퍼스 고양이